

『사회복지법인 정화복지재단』
정기이사회 회의록

2023년 1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정화복지재단

정기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11:00 ~ 11:50

2. 장 소 : 법인사무국

3. 참 석 자 : 대표이사 이 세 창

이 사 김 정 철, 이 상 근, 최 재 용, 박 옥 순, 김 심 선
감 사 윤 철 선, 박 은 규

4. 안 건 : 1.2022년도 법인 및 시설 결산서 심의 의결의 건
2.수익사업에 대한 임대계약 허가건 심의 의결의 건

5. 회의내용

제적이사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므로 성원보고와 회의개회를 선언합니다.

○대표이사 : 본 사회복지법인을 위해 항상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참석이
사님들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법
인과 산하시설의 결산서 심의 의결 건에 대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분들과 결산자료 검토를 받은 사무국장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겠습
니다.

○윤철선 감사(사무국장 보고) : 보고에 앞서 나누어 드린 2022년도 법인과 각 시
설의 결산 총괄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가 3년간 계속되는 힘
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입소어르신을 성심으로 모신 결과 사회복지법인 정화복지
재단과 산하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대한 결과는 노인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센터의 입소율과 이용률이 타 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과 입소어르신들을 위
한 대표이사 이하 전 직원의 부단한 노력을 볼 수 있었으며, 어르신 개별 케어에
따른 차별화 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입소어르신 생활 케어의 질적 향상과 노인

케어에 대한 전문성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되며 법인과 산하 시설의 회계처리 업무 전반은 잘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1. 2022년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의 결산서 심의의 건

○대표이사 : 감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법인의 일반회계 결산은 수익사업 전입금 사천만원으로 지출을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결산은 2022년 월세 수익금 55,130,000원을 수익사업체 운영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사천만원을 법인의 일반사업회계로 전출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정화노인요양의 결산은 결산결과 세입예산대비 결산은 99.92% 세출예산대비 결산은 99.21%로 집계되었으며, 이월금은 27,127,675원 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법 제 38조 4항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비율이 61.4%이상인 정화노인요양원원의 종사자 인건비 지출비율은 71.9%로 확인되며, 산하시설인 정화 주.야간보호센터의 결산은 결산결과 세입예산대비 결산은 99.87%이며, 세출예산대비 결산은 88.68%, 이월금은 65,170,752원이며, 장기요양보험법 고시 상 49.0%이상인 종사자 인건비 지출비율은 연간비율이 76.5%로 확인 집계되었습니다. 정화양로원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세입액 결산액이 1,078백만원이고 총세출액 결산액은 1,036백만원이며, 이월금은 42,575,113원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나누어드린 회계자료와 감사보고서에 따른 2022년도 각 산하시설의 세입·세출 결산표 및 사업실적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이사 : 감사결과 보고와 자료를 보니 예산과 결산이 별 무리 없이 잘 집행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의 결산서 및 사업실적은 보고한 내용대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안에 대한 심의는 승인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근이사 : 박옥순이사님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최재용이사 : 사회복지법인의 전년도 결산사항을 보고 받으니 정화복지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이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이 건은 저도 박옥순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정철이사 : 법인 대표이사님의 자신감에 찬 말씀을 들어보니 산하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법인과 산하시설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드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표이사 :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법인 정화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대한 이번 결산결과는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인한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입소어르신을 정성과 성심으로 모신 결과 지역사회에 평판이 좋아서 항상 정원을 채우고 정화노인요양원의 경우 대기자까지 15여명 이상 대기 중에 있고 정화 주야간보호센터는 25명 정원의 치매 전문실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현재는 정원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고 휴머니티드케어를 통한 개별어르신 케어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생활 케어의 질적 향상과 노인 케어 전문성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승인 제의와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최재용이사 : 저도 법인과 산하시설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심선이사 : 예,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의 전년도 결산사항을 보고 받으니 정화복지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이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저도 최재용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근이사 :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정철이사 : 예, 저도 동의합니다.

○대표이사 : 그럼 2022년 법인 및 산하시설의 결산서 및 사업실적에 대한 안은 심의·승인·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에 대한 임대계약 허가건 심의 의결의 건 관한 안건으로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수익사업에 대한 임대계약 허가건 심의 의결의 건

○대표이사: 다음은 당 법인의 수익사업용 집합건물인 미래아트빌의 개별 호실 임대
대에 관하여 전체 건물의 임대 관해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개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에 수익사업의 원룸 임대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
고자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재용이사 : 매년 정기이사회에서 일괄로 전체 건물에 대하여 임대 관해 의
결을 하면 수월하게 임대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 안건에 대하
여 찬성 하는바 입니다.

○대표이사 :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규칙 제14조에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처분
허가를 받아야한다."라는 조문으로 인하여 수익사업의 임대계약 시는 허가를 득해
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의
하여 "**집합건물의 개별 호실 임대의 경우 개별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마
다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지 않고, 전체 건물의 임대 관해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가능**"하다고 개정이 되어,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전체 건물의 임대 관해 임대
결의를 해 주시면 개별 호실에 대한 허가를 위한 이사회 개최를 안해도 되게 규
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김정철이사 : 예, 원룸이나 투룸 임대계약은 보통 1년이나 2년 계약으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저도 이 안건에 찬성합니다.

○박옥순이사 : 예,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하여는 참석이사님들의 이의가 없을 것으
로 생각되며, 저는 이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근이사 : 저도 찬성합니다.

○김심선이사 : 저도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 대표이사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안건은 수익사업 원룸과 투룸의 임대계약에
따른 이사회 개최를 매년 정기이사회 개최 시 전체 건물의 개별 호실 임대를 일
괄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이사님들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 대표이사 : 예,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정화복지재단의 정기이사회에 각자의 사업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사님들에게 장시간 안건에 대하여 승인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참석이사님들 전원의 동의로서 심의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본 정기이사회를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대표이사 : 이 세 창



이 사 : 김 정 철



이 사 : 이 상 근



이 사 : 최 재 용



이 사 : 박 옥 순



이 사 : 김 심 선



감 사 : 윤 철 선



감 사 : 박 은 규

